

책을 읽읍시다

(다양한 독서운동)



· 북스타트운동

북스타트 운동 본격 돌입

알찬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배려가 아기의 첫 책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 열풍을 불러일으킨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이자 북스타트한국위원회 위원장인 도정일(63·경희대학교수) 교수가 본격적으로 북스타트 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4월 1일 서울 중랑구에서 첫발을 내딛은 북스타트 시범사업이 2004년 9월부터 전국 4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하게 됐다. 북스타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중구와 중랑구,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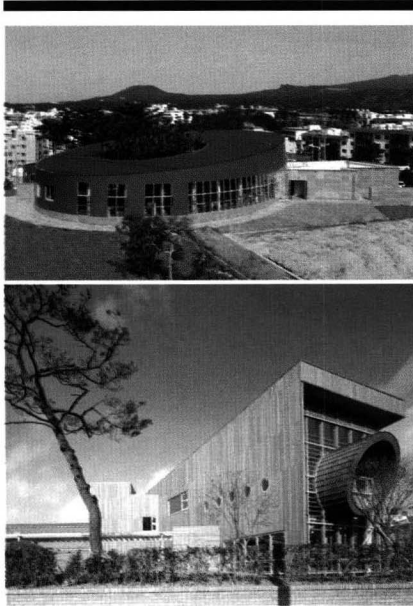
1992년 영국에서 출범한 북스타트 운동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0여 곳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의 독서운동이자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경우 아기와 보호자는 DPT 3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들르는 6~7개월 시기에 예방접종을 마치고 난 후 그림책 두 권과 부모용 안내책자, 아가용품 등이 담긴 가방을 받는다. 북스타트는 아기의 성장에 무엇보다 좋은 영향을 주는 최선의 매체인 '책'과 '책읽기'를 통해 자녀양육과 책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 7 회 부 천 국 제 만 화 축 제 코믹북페어

올해에도 만화가 활짝 핀 복사골로 오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가 주최하는 제7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 전관과 송내역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의 만화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만화 저작물의 비즈니스를 위한 코믹북페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행사는 한국만화기네스북전, 만화 속의 부천 풍경전, 한국의 만화가 핸드프린팅전, 원화 판매전 등 다양한 기획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의 만화문화와 주요작가를 소개하는 해외만화특별전과 관람객이 직접 만화를 그리고 무빙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체험관도 준비한다.

2004 파 주 어 린 이 책 한 마 당

놀기도 신나고 배우기도 신나요, 울여름 못간 휴가는 출판도시로 가요!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과 파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2004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이 파주출판도시에서 열흘간(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03년 첫 회, 10일 동안 6만여 명이 다녀가 어린이책에 대한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확인했다. 올해는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라는 주제 아래 흥과 바람과



•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강이 어우러진 곳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초대한다. 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출판도시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출판문화 공동체를 우리 민속놀이인 율리시와 줄다리로 형상화하는 '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마당극과 구연동화, 어린이 천문대 등 갖가지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책문화 한마당', 어린이 아트북과 '아름다운 가게'의 회귀 현책을 전시하는 '어린이 도서전'은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행사다. 이 외에 고故 마해송 선생님을 기리는 '아동문학세미나'가 진행되고 도시적 모습을 갖춘 세계 최초의 '책의 마을'인 파주출판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더불어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 및 인쇄소 사옥 내부를 견학할 수도 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입장이다.

문의_출판도시문화재단 : (031)955-0050, e-mail : pajupcc@unit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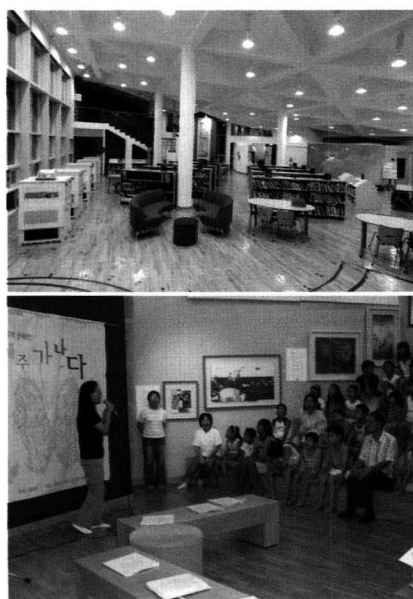
어린이 전용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설립

— '기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독서운동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 조정일)은 2003년부터 건립 건반을 주관해 온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 7개소에 문을 열었다. 전남 순천(2003년 11월), 충북 제천과 경남 진해(2003년 12월), 제주와 서귀포(2004년 5월), 충북 청주와 울산 북구(2004년 7월)가 그곳이다. 인천 부평과 충남 금산에서도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은 건물과 공간구조의 차원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설계됐다.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문화를 공공의 도서관에 도입하고, 성장기 아이들을 이야기 나라로 안내하기 위해 매력적인 '이야기방'들을 준비했다. 책읽기 외에도 아이들이 여러가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다목적실과 다매체실도 마련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편안하고 풍성한 공간으로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맞이한다.

새로운 운영방식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기를 비롯해서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 춤, 그림, 영상, 공작, 낭송, 연극, 디지털 문화활동, 탐방, 놀이 등의 창조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한다. 기적의 도서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 제주 가나다전

그림책 '제주 가나다展'

— 가나다따라가다 보면 제주가 보여요!

제주가 이야기와 그림으로 태어난다. 에프왈그룹과 제주그림책연구회가 공동기획한 그림책 《제주 가나다》를 원화로 전시하는 '제주 가나다展'이 8월 18일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기적의 도서관(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8월 27일부터 31일), 광명초등학교(11월 4일부터 6일까지), 표선초등학교(11월 11일부터 13일)로 이어진다.

꽃자왈, 노랑굴 검은굴, 돌하르방, 룩담만설, 몽생이, 빙떡, 설문대할망 등 자음별 제주 상징어를 쓰고 그려 14편의 제주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제주 가나다》는 제주그림책연구회 회원들이 글을 쓰고 에프왈 회원들이 그림을 그렸다. 서양화, 한국화, 판화, 퀼트, 도자기 등 장르를 망라한 그림에 얹혀진 시적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글**

글 | 홍이현 기자